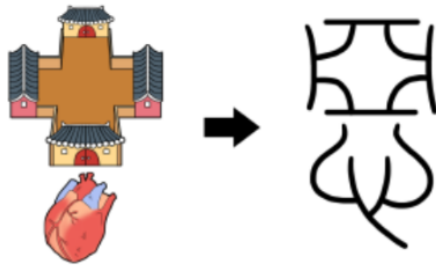


5(2)
-
61

회의문자 ①



惡

악할 악
| 미워할
오

惡자는 '미워하다'나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惡자는 '악하다'라고 할 때는 '악'이라고 하지만 '미워하다'라고 말할 때는 '오'라고 발음을 한다. 惡자는 亞(버금 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亞자는 사면이 요새처럼 지어진 집을 그린 것이다. 惡자는 이렇게 사방이 꼭 막힌 집을 그린 亞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감혀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악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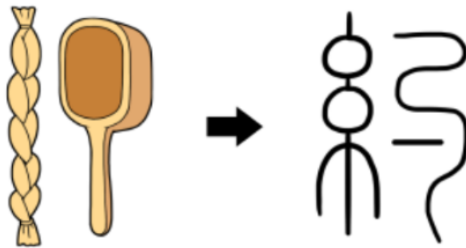
소전

惡

해서

5(2)
-
62

형성문자 ①



約

맺을 약

約자는 '묶다'나 '약속하다', '맺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約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勺(구기 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勺자는 술이나 물을 푸던 국자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작 → 약'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約자는 실타래를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系자를 응용해 '묶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람 간의 약속도 실타래처럼 단단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約자는 '묶다'라는 뜻 외에도 '약속하다'나 '맺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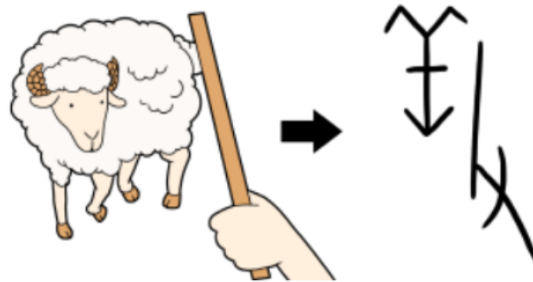
소전

約

해서

5(2)
-
63

회의문자 ㉠



養

기를 양

養자는 '기르다'나 '먹이다', '봉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養자는 羊(양 양)자와 食(밥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글자의 조합으로만 보면 養자는 마치 양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과도 같다. 그러나 養자의 갑골문을 보면 羊자와 攴(칠 북)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목축업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기르다'나 '번식시키다'라는 뜻이 파생되자 攴자를 食자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의 養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64

상형문자 ㉠



要

요긴할
요

要자는 '구하다'나 '원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要자는 𠂔(뒹을 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뒹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要자의 갑골문을 보면 허리에 손을 올린 여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희(舞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要자의 본래 의미는 '허리'나 '(허리를)감싸다'였다. 그러나 후에 허리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중요하다'나 '요긴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要자의 의미가 바뀌면서 지금은 여기에 月(육달 월)자를 더한 腰(허리 요)자가 '허리'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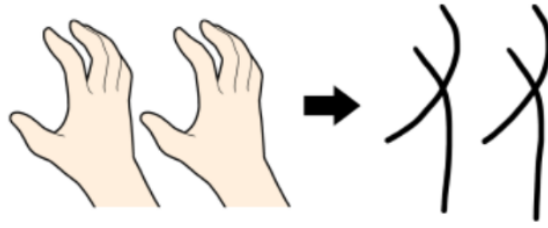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65

회의문자 ①



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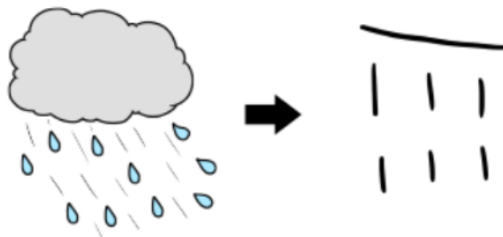
벗 우

友자는 '벗'이나 '사귀다', '우애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友자의 갑골문을 보면 又(또 우)자가 나란히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친한 벗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뜻이다. 가까운 친구 간에 또는 이성 간에 손을 맞잡고 다니는 모습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다. 友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66

상형문자 ①



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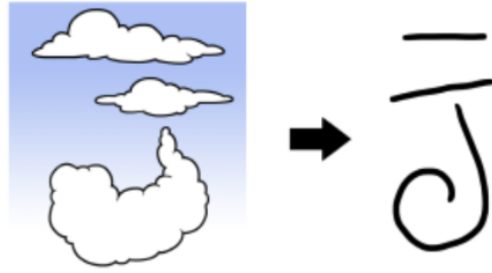
비 우

고대 중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매우 중시했었다. 농업의 성공 여부는 날씨와도 직결된다. 그래서인지 한자에는 날씨와 관련된 글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雨자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한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날씨와 관련된 글자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갑골문에 나온 雨자를 보면 하늘에 획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점이 찍혀있었다. 이것은 구름 아래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雨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날씨나 기상 현상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67

회의문자 ㉠



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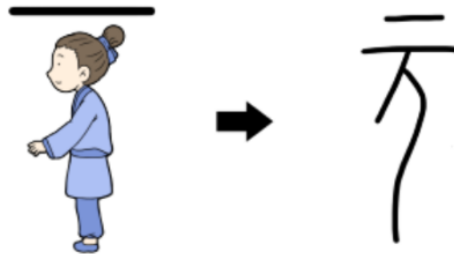
구름 운

雲자는 '구름'이나 '습기', '덩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雲자는 雨(비 우)자와 云(이를 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云자는 뭉게구름이 피어오른 모습을 그린 것으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름'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기 위해 雨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구름은 하늘 높은 곳에 떠 있으므로 雲자는 높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금세 사라지기도 하기에 속되고 덧없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간체자가 보급된 이후 다시 옛 글자인 云자를 사용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68

회의문자 ㉠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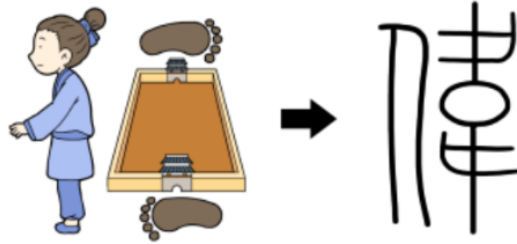
으뜸 원

元자는 '으뜸'이나 '시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元자를 보면 人(사람 인)자의 머리 부분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元자는 본래 사람의 머리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으뜸'이나 '시초', '근본', '우두머리'와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칭기즈 칸의 손자이자 몽골의 제5대 황제인 쿠빌라이가 세운 나라 이름도 원(元)이었다. 1279년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도 '으뜸인 나라'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69

회의문자 ①



偉

클 위

偉자는 '크다'나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偉자는 人(사람 인)자와 韋(가죽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을 둘러싸고 경계를 서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성은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둘레가 상당히 넓었다. 이렇게 큰 둘레로 그려진 韋자에 人자를 결합한 偉자는 사람의 인물 됬됨이가 성의 둘레만큼 크다는 뜻이다.

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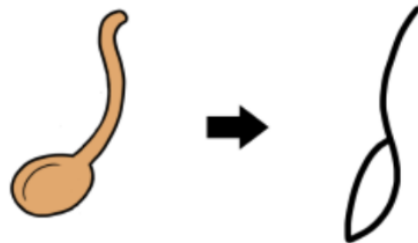
소전

偉

해서

5(2)
-
70

회의문자 ①



以

씨 이

以자는 '~로써'나 '~에 따라'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以자는 人(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以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수저와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두고 발을 가는 도구이거나 또는 탯줄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하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무엇을 그렸던 것인지의 유래와는 관계없이 '~로써'나 '~에 따라', '~부터'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以

갑골문

以

금문

以

소전

以

해서